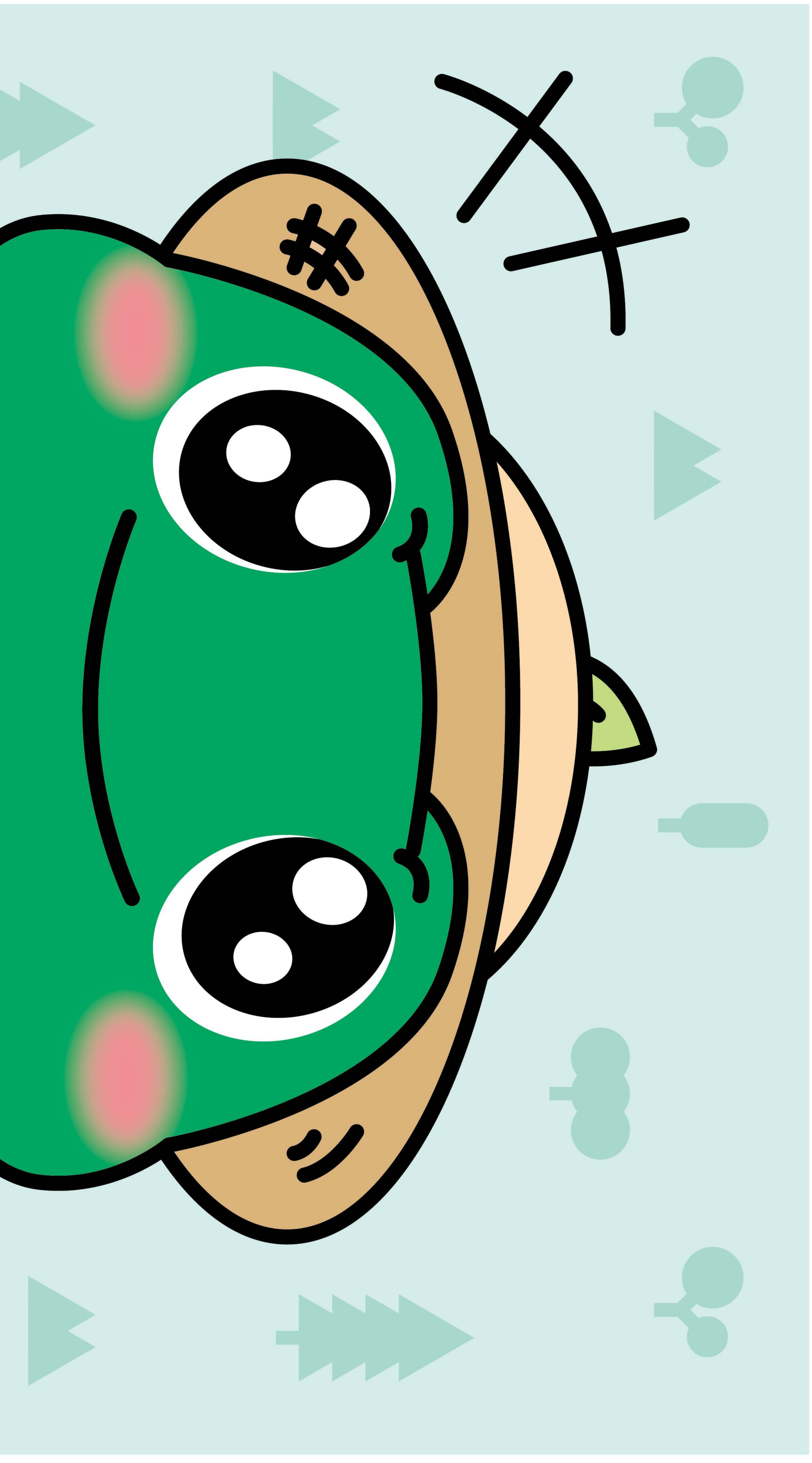


VOI. 환경
골포천천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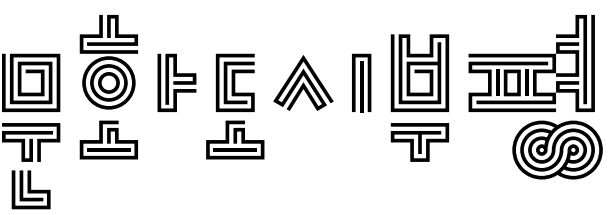
로깅로깅 LOCAL LOCAL

CONTENTS

- | | | | |
|----|---|----|--|
| 02 | 문화도시부평, 환경도시부평
- 여는 글 / 이찬영
- 2022년 <골포천천히> 사업로드맵 | 08 | 환경 교육 다시 읽기
- 채식, 시작해볼까? / 손은경
-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 김승현
- 환경 교육을 끝내며 / 소중한 모든 것 |
| 04 | 골포천천히 환경축제
- 생생한 축제 후기 | 11 | 용기내 골포
- 쓰레기 없는 환경 공간 |
| 05 |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
- 우당탕탕 제로웨이스트샵 운영기 / 윤지혜
- <골포천천히>, 시작과 이어짐 / 김찬미 | 12 | 시민들의 이야기
- 우리가 에코라이터
- 닫는 글 / 김한솔이 |
| 07 | 고마워 골포 | | |



문화도시부평, 환경도시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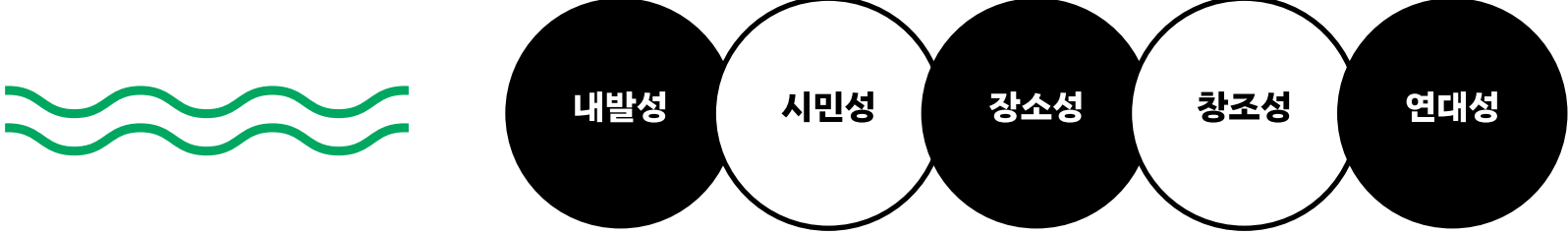
너와 나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문화도시부평

부평구는 2016년부터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해 온 결과, 2021년 1월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되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다양성과 문화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지역 선순환의 문화일자리 창출을 통해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션

시민 주도의 문화두레 실현

핵심가치



여는 글

즐거운 땀방이가 되어볼까?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2022년 초 문화도시부평 2년 차를 준비하며 올해 <굴포천 예술천 조성사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이 사업은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는 사업인데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굴포천 복원 사업이 진행형이라 사업 장소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사업을 담당하는 문화도시센터 창조팀이 환경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들과 기획단을 꾸려 지혜를 모으는 중에 ‘땀방이’가 등장해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된다. 갑자기 웬 땀방이? 주인공 등장을 계기로 부평 굴포천에서 땀방이 서식지가 발견되었으며, 땀방이가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멸종위기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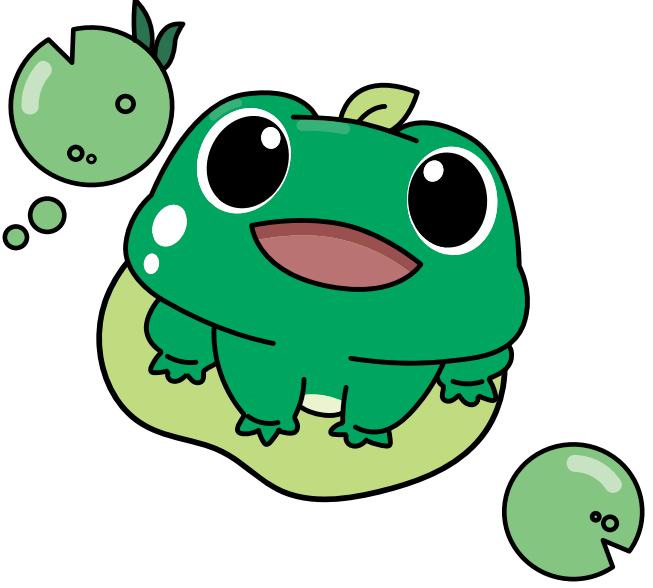
나는 도시에서 자라면서 땀방이는 소리와 사진으로 접했을 뿐, 직접 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직접 보는 것은 쉽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삶 곳곳에서 땀방이를 생각하는 실천은 가능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실천하고 있는 개인 컵 쓰기부터 음식점 갈 때 다 화용기 가져가서 남은 음식 싸기, 탄소발자국이 적은 음식과 물건 사기, 컴퓨터 오래 안 쓸 때는 끄기, 빈 사무실이나 방 조명등 끄기, 개별 전원 조정이 가능한 멀티탭 쓰기, 고기와 유제품 섭취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종이 인쇄 줄이기, 배달 음식 주문 한 번 참기, 예쁜 옷 사기 한 번 참기, 무엇보다도 주변에 기후위기 심각성 알리기, 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활동, 분포역 및 개체군 크기 변화가 뚜렷하거나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종.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가 한반도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대해 효율적인 감시 및 예충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을 선정. 척추동물 18종, 무척추동물 28종, 식물 44종, 균류 및 해조류 10종.

기후변화 대응이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말로 바뀌고 있다.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거고, 장밋빛 미래는 없다는 인식을 담은 게 아닐까? 우리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는 어렵더라도 살아가는 장 곳곳에 땀방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여기저기서 땀방이 소리가 들리는 도시에 사는 날을 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가끔 운 좋게 땀방이도 직접 보면서 말이다.

굴포천천히의 캐릭터는 땀방이다. 이 땀방이는 귀엽기도 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한다. 휴지 줍고, 스케이트 보드 타고, 소풍 가고, 디제잉도 한다. 땀방이가 못 살면 우리도 이렇게 재미있게 살기 어렵다. 결국은 땀방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실천은 미룰 수 없다. 문화도시부평과 함께 우리가 하는 실천에 의무감이 아니라 재미를 더해보자. 삶과 예술을 즐기며, 재미있게 실천하는 행복하고 시끄러운 땀방이가 되어 여기저기에서 만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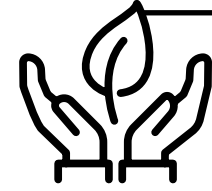
2022년 <굴포천천히> 사업 로드맵

<굴포천천히>는 문화도시부평의 굴포천 예술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평구의 대표적인 생태하천인 굴포천과 환경을 연계하여 생태+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목적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22. 4. ~ 6.	>	2022. 6. ~ 7.	>	2022. 7.	>	2022. 8. ~ 9.	>	2022. 10.	>	2022. 12.
굴포천 환경 프로젝트 사업 기획		굴포천 환경 프로젝트 기획단 조직		<굴포천천히> 사업명 탄생 및 프로그램 기획		<굴포천천히> 시민 환경교육 운영		<굴포천천히> 환경 축제 개최		<굴포천천히> 환경 워크숍 운영

<굴포천천히> 환경 축제

모두가 함께 했던 <굴포천천히> 환경 축제 프로그램

	market 굴포를 즐기자	1.상점 플리마켓 친환경 제품, 비건, 환경 창작물, 중고 물품, 유기농 작물 등 환경을 주제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함께 배우고 나누는 플리마켓 운영
	enjoy 환경을 더 가까이 체험부스	2.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천연 수세미 만들기 / 친환경 플라스틱 수경 화분 가드닝 배우기 / 재활용 양말목공예 열쇠고리 만들기 / 노플라스틱 샴푸바 만들기 / 친환경 손세정제 만들기 / 커피찌꺼기로 만든 키링 채색
	envent 맹공이를 찾아라!	3.리필스테이션 & 공유살림존 다회용기 습관을 기르는 체험부스. 기부자에 한해 리필스테이션에서 친환경 세탁세제 또는 섬유유연제, 비건 과자교환
		1.「적당히 불편하게」환경 도서전 _ 출판스튜디오 <쓰는하루> 2.자전거 발전기 비눗방울 만들기 체험 _ 키즈존 3.환경 다짐 쓰기 캘리그라피 _ 딱풀연구소 4.환경 그림책 읽기 _ 이현지 강사 5.sing그러운 굴포공연장 _ 감성골목 / 신나는 섬
		<굴포천천히> 환경 축제 현장에 숨은 맹공이 도장도 모르고, 환경도 배우고, 친환경 선물까지 받아볼 수 있는 도장 이벤트 운영

생생한 축제 현장을 담은 참여자 후기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을 배웠어요!”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활피앤피 **박병근 대표**

지역에서 같은 마음으로 힘쓰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경 가드닝 체험 부스를 진행하면서 어린이 친구들부터 장년하신 분들까지 만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굴포천천히> 축제를 통해 많은 분들께 환경을 위하는 마음이 마냥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 보자라고 알려준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환경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축제”

친환경 플리마켓 시민 판매자, 안나로그 **박은지**

제가 좋아하는 굴포천 산책길이 복직되는 모습을 보니 좋았어요. 준비한 친환경 소창와입스와 소창행주 겸 보자기를 출산준비물로 세트로 구매해가신 임산부 손님이 기억에 남아요. 소창을 알리고 싶은 제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 더욱 뿌듯했습니다. 환경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더 좋았습니다. 좋은 행사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과 문화가 잘 어우러져 굴포천에 어울리는 행사였습니다.

“활기가 넘쳤던 우리 동네!”

환경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 **이현지 강사**

자연 속에서 환경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은 정말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딱 어울리는 행사였고, 환경 주제에 맞춰 판매 부스도 나무로 제작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우리 동네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굴포천천히> 축제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환경축제!”

환경 도서전 운영, 출판스튜디오 <쓰는하루> **김효섭 대표**

<굴포천천히> 환경축제에서 환경도서전을 운영하면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아이들 손을 잡고 오셔서 함께 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들이 기억에 남네요. 장소가 공연과 잘 어울려서 분위기가 정말 최고였어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환경 축제를 기대하며”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운**

<굴포천천히>에서 커피클레이 채색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여하셔서 설레는 활동을 했습니다. 환경 활동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환경축제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고정적으로 축제가 열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로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지역 청년의 이야기

1. 우당탕탕 제로웨이스트샵 운영기

글 | 가벼운 오늘 **윤지혜**

가벼운 오늘의 첫 한 해

굴포천에 가벼운 오늘을 오픈 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용감하게 제로웨이스트샵과 비건 카페를 열어보겠다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걱정과 만류를 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네요. 지난 1년은 제가 각오했던 것 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힘들었던 나날들이었지만, 그만큼 더 뿌듯하고 즐거웠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2~3년 전부터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모두의 생활 속에 익숙한 것은 아니다 보니 아직까진 운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단순 카페인 줄 알고 들어오셨다가 환경에 관련된 곳인 걸 알자 ‘환경이 뭐가 중요하냐.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이러니까 손님이 없지.’라며 망언을 한 손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 떠난 뒤 얼마 후 단골 손님이 오셔서 ‘오늘 연차였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기 아쉬워서 어디 갈까 하다가 바로 떠오른 게 가벼운 오늘이었다.’며 집 주변에 이런 곳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상처받았던 마음이 사르륵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응원해주시고 저만큼 가벼운 오늘을 아껴주시는 분들 덕분에 1년을 무사히 보낸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기억, <굴포천천히>

가벼운 오늘을 운영하며 좋은 기회로 7월부터 부평구문화재단을 도와 <굴포천천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 교육에 오신 분들이 드실 비건 디저트 케이터링도 진행하고 축제 때는 리필스테이션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비건 크래커, 고구마칩을 리필 해가는 체험을 진행하였는데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친구랑 과자를 각자 봉투에 담고 싶다는 아이에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 종이봉투 하나로 친구랑 나눠 먹으면 어떨까 하며 어르기도 하고, 봉투 대신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손위에 과자를 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리필 용기를 안 가져오셔서 주로 종이봉투와 환경차에서 기부받은 재생 용기를 사용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리필스테이션을 인터넷이나 방송에서만 보셨던 분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리필 용기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말려오면 되는구나, 리필스테이션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등등 다양한 분들이 제로웨이스트에 대해 알게 되고 친숙해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첫 야외 리필스테이션 부스 운영인지라 몇 시간을 정신없이 뛰어 다녔지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생기가 솟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리필스테이션을 경험해보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은 사실 ‘실패’였습니다. 여전히 가끔 배달 음식을 먹고 후회하기도 하고 텀블러를 까먹고 외출하기도 합니다. 손수건을 식당에 놓고 와서 새 손수건을 쓰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종종 벌어지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기보단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환경 보호라는 것은 단발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가져가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회용품을 썼다고 좌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은 다시 텀블러를 챙기면 되니까요. 아무것도 안하는 것 보단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생각날 때만큼이라도 실천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체, 자연, 지구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벼운 나날들이 되길 바라며 가벼운 오늘은 앞으로도 고군분투하게 될 거 같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작은 실패와 성공 둘을 모두 응원합니다.

가벼운 오늘

운명처럼 기후변화박물관이 보이는 굴포천 생태공원 앞에 위치한 제로웨이스트샵 & 비건카페. 친환경 생활용품, 리필스테이션(세제류, 식품류), 무포장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핸드드립 커피를 공정무역 원두로 내리며 우리밀 통밀, 두유, 현미유, 비정제원당 등 건강한 식물성 재료를 사용해 비건 디저트를 직접 만들고 있다.



2. <굴포천천하>, 시작과 이어짐

따로 또는 같이, 천천히 혹은 빠르게 살아가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과 사물을 서로 잇거나 현상과 현상이 관계를 맺게 함'이다. 이번 <굴포천천하> 사업은 부평에 새로운 현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가 꼭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삶과 지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변화는 분명 연결된 모든 존재를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다.

요즘 인천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기술 발전과 같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편리를 높이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의 움직임이. 지구와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건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일 말이다. 올해 인천 굴포천에서 문화도시부평이 주최한 <굴포천천하>라는 이름의 사업이 진행됐다. <굴포천천하>는 환경 교육과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환경축제 등을 통해 굴포천 일대에 환경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낯설지만 익숙한, 멀게 느껴지지만 실은 가까운 일인 환경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을 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환경 교육과 축제에 찾아오고 이런 시간이 만들어진 것을 반가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힘이 났다. 환경 강연을 한 날에는 강연 장소가, 환경축제가 열린 날에는 굴포천 산책로가 사람들로 북적였다. 조용했던 동네에 건강한 활기가 도는 걸 보며 기분이 무척 좋았다. 굴포천 동네에 오래 사신 할머니 할아버지, 중년과 청년, 청소년과 어린이, 강아지까지 모두 환경축제를 즐기며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과 기쁨을 느꼈다. 찾아온 사람 중 다수가 앞으로도 이런 문화와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글 | 연근상점 김찬미

연근상점은 제로웨이스트를 가까이 경험할 수 있고
맛있는 제철수제식료품을 만날 수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연근상점을 통해 인연이 시작되고 나의 세계가 확장되고
그로 인해 지금을 즐겁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동네 사랑방이 된 포근한 연근상점으로 쉬러 놀러 오세요!



처음 문화도시부평의 연락을 받고 회의에 참여했을 때 함께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다가 사업명을 정하는 시간에 문득 <굴포천천하>가 생각나 얘기했다. 그게 정말 사업명이 될 줄은 몰랐는데 좋은 반응으로 선정되어 뿌듯했다. <굴포천천하>라는 이름을 애기할 이유가 있다. 좋아하던 곳인 굴포천에 살게 되고 자주 동네를 산책하면서 나는 굴포천이 도시 속 숲 같다고 느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힘과 커다란 나무가 가득한 산책길에 반했고 다양한 새들을 보고 물과 새소리를 들으며 걸을 때면 마음이 평온해졌다. 계절마다 변하는 나뭇잎의 색과 굴포천의 풍경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봄이 오면 연둣빛 새싹이 돋고 여름이 오면 짙은 녹음이 우거지고 장마철엔 길이 모두 덮일 정도로 풀이 강하게 자라나고 가을이 오면 색색의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굴포천의 모습은 바쁘게 살다 보면 잊기 쉬운 계절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줬다. 그런 날들을 통해 천천히 보내는 시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 빠르게, 바쁘게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소중한 순간이 참 많다. 그래서 나는 <굴포천천하>를 통해 천천히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자연을 지키면서 삶을 즐겁게 채워나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다. 천천히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굴포천천하>라는 이름처럼 천천히 이어 나가고 싶은 게 많아 <굴포천천하>의 행보가 기대된다.

<굴포천천하>와 더불어 내가 사는 인천에서 하고 싶은 일을 실행 해본 2022년이였다. 2021년엔 제로웨이스트 문화가 없었던 부평에 최초로 제로웨이스트샵 & 제철식료품점 & 비건카페인 연근상점을 열어 가게 안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고 2022년엔 가게를 넘어 인천에 새로운 환경친화적 문화를 만드는 데에 온 힘을 다했다. 이웃 가게 연꽃빌라와 '서로 아끼는 지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부터 여러 차례 비건 요리 수업을 하고 마켓에 나가고 '인천유랑마켓'을 기획해 연 것까지. 인천에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을 직접 하게 된 것은 나고 자란 인천에 대한 애정과 필요성을 느낀 마음이 모두 컸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 멋진 사람과 공간, 다양한 매력이 있는 인천에서 나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원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다. 인천이 더욱 즐겁고 건강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고마워 굴포**고민하고 마음을 나누고
워크숍을 통해 환경을 배우자!**

왜 환경을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환경'이라는 주제에 다 각도로 접근하며 많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총 8회 과정 <굴포천천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환경 활동가, 친환경 상점 운영자, 환경 창작자와 시민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매우 의미 넘쳤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환경 이야기를 더 많은 이와 나누기 위해 글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1회차****쓰레기 큐레이터 with 프리 플라스틱 삼푸바 만들기 워크숍****제로웨이스트 상점 「소중한 모든 것」 소정 대표**

지구를 지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실천하는 재활용 분리수거.
그런데 분리수거가 정말 환경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손을 떠난 재활용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쓰레기들이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부터 제로웨이스트 샵이 자원을 모으는 진짜 이유 그리고 모인 자원들이 가는 곳까지 쓰레기의 발자취를 따라가보았어요.

2회차**건강하게 지구를 지키는 법 with 채식 음식****「나의 비건 분투기」 손은경 작가**

육식이 일회용품 사용보다 더 많은 탄소량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채식과 기후 위기의 연결 고리를 알아보고 건강하게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채식 요리는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 맛있는 채식 이야기들 등짝 준비했습니다.

3회차**쓰레기 덕질을 권합니다****제로웨이스트 상점 「알맹상점」 이주는 대표**

쓰레기 덕후가 환경실천가가 되기까지의 과정!
국내 최초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알맹상점」과 함께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싶지만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상 속 환경 문화를 나눴습니다.

4회차**무해한 지구 생활 안내서 with 비건 베이킹****친환경 잡지 「바질」 김승현 편집장**

수많은 노력에도 유해해지고 있는 지구.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는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친환경 잡지 「바질」의 김승현 편집장님과 함께 기후위기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생활 속 실천과 환경에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 기후변화부터 실천까지 돌아봤습니다.

5~6회차**포근한 양말목 (새활용 워크숍)****양말목 공예 「플로몬트」 박선희 대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양말목 공예, 양말목은 어디서 생산되었을까요?
지구도 살리고, 우리집 분위기도 살리고! 폐양말목의 변신. 산업폐기물로 버려지던 폐양말목을 활용한 텀블러 주머니와 방석 만들기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7~8회차**하루 채식 한 끼 (채식 워크숍)****채식 요리 클래스 「연근상점」 김찬미 대표**

채식을 실천하기 어렵나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4인 가족이 일주일에 단 하루만 고기와 치즈 대신 채식 식단으로 바뀌면 5주 동안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것과 같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채식을 실천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채식 요리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환경 교육 다시 읽기

1. 채식, 해볼까 봐요

글 | **손은경** 작가

“안녕하세요. <기후위기와 채식, 그 연결고리>에 관해 강연 할 양꼬치 먹은 비건, 작가 손은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2 굴포천천히> 환경 프로그램 연사로 부평에 간 날의 이야기입니다. 공간을 가득 메운 부평시민 얼굴엔 파스함이 드리던, 8월 30일 저녁이었습니다.

시작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인류가 온몸으로 감각하기 시작한 지구의 고통, 기후환경이 미친 영향, 그 위기에 관한 것이었죠. 주원인은 온실가스 증가였고, 반전이라면 (통념이 된 것처럼)화석연료 사용이 온실가스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육식의 영향이 더 컸죠. 소가 내놓는 메탄, 가축을 위해 파괴 된 열대우림, 상업 고기 판매를 위한 일련이 온실가스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기후위기에서 벗어나 효율적 대책이 무엇인고 하니 채식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채식이지만 육식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건이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세상에 채식 하기관 정말이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구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래도, 좋아질 것이다.’ 꺼지지 않은 희망을 본 건 부평 시민 분들 눈빛에서였습니다. 강연자는 필연적으로 청자 반응을 느끼게 되어있습니다. 의지가 투영된 눈빛은 내게 반짝임으로 전달됩니다. 아무렴 지금과 같은 생활이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8살 어린이부터 70대 할아버지까지, 변해야 한다는 의지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을 그 자리에 와 하나라도 새기려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진행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건이 되어볼 생각 있으신가요?’ 그러자 일곱 분 정도 번쩍 손드셨는데, 이토록 감격스러운 순간이! 강연 내내 부평시민 분들과 주고받은 파동은 어느새 새 결실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들 삶에 새 혁명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주제넘은 일인 것도 같지만, 강연에 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식에 대한 과장, 그에 반한 채식에 대한 오해, 이 둘을 풀었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비건과 논비건이 서로를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저마다 타이밍이 있기 마련입니다. 비건은 논비건을 힐난해선 안 되고 논비건은 비건을 향해 비아냥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존중’이 전하고 싶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관계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이야기로 강연 마무리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개체로 존재하는 것 같은 우리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연결성에 의해 언젠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구에게 많은 것을 얻었고 이제는 되돌려 줄 차례라는, 조쉬 테트릭의 대사는 많은 것을 함의합니다.

자주 만났으면 합니다. 나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무렴 현대 생활은 지속가능과 멀어 보입니다. 육식이 다수 채식은 소수이고,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이 아직은 일상입니다. 그래서 금세 무뎌지기 쉽습니다. 기후환경을 향한 관심은 그래서 잊혀지기 쉽습니다.

잊을 만하면 다시 만나 관심을 여기로 되돌려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부평 ‘굴포천천히’ 프로그램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에 반갑기만 합니다. 반가움에서 시작해 반가움으로 끝나는 이 일은 영원히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모두의 안녕(安寧)을 기원하며.

2.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글 | **김승현**(바질 발행인)

우리나라 서해에 가면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해안사구가 있다. 신두리 사구 같은 곳은 사진으로만 놓고 보면 사막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정도이다. 예전 모 핸드폰 광고는 아예 이곳에서 사막인 것처럼 광고를 찍기도 했으니까. 거대한 모래더미를 보고 있다면 이 많은 모래가 쌓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그 시간 속에 내가 살아온 시간은 점 같은 길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시에 나는 이곳을 보며 세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바닷가에 쌓인 모래를 바람이 육지 방향으로 차곡히 쌓아 올렸고, 파도가 실어다 준 모래는 바람에 잘 날리도록 태양이 말려주었다. 그리고 그 모래는 바다의 해류가 먼바다에서 실어다 주었다. 내 눈에는 반복해 일어나는 파도와 해안의 신비한 모래 언덕만 보이지만, 가까이는 중국 해안으로부터 왔고 그전에는 태평양과 인도양, 대서양 그리고 남극과 북극까지 흘러 흘러 온 바닷물이 이 모래 언덕의 시작점에 있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바닷가에 조용히 누워있는 저 페트병도 해류와 함께하는 여행을 마치고 이곳에서 침표를 찍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다. 페트병을 들어 보니 중국어일 것 같은 한자가 잔뜩 쓰여 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은 아니니 아마 서해 너머 중국에서 흘러온 것이겠지. 얼마의 시간이 걸려 이곳에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페트병을 감싼 비닐 라벨의 글씨가 조금 빛바래긴 했으나 아직은 선명한 것을 보니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것이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데, 나는 중국에서 날아온다는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이 중국 출신의 음료 페트병 덕분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환경에 관해 관심을 두고 배우고 느끼고 이야기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 페트병 하나가 페트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세상 문제가 담겨 있었다. 페트병을 만들기 위해 배출하는 온실가스, 동물 똥속에 들어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문제는 일부일 뿐이었다. 훨씬 더 복잡했다. 이것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사라지는 모든 순간이 연결되어 있었다.

페트병을 만드는 것은 이를 만들기 위한 원유를 사들이는 것으로 가야 하고, 이 이야기의 시선을 더 깊게 보면 중동의 오일아든 미국의 셰일 오일아든 원유를 시추하기 위한 과정이 있다. 시추를 하려면 이를 위한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를 만들 자원과 사람들의 노고는 당연히 따라붙는다. 시추한 석유를 옮기는 과정 또한 많은 자원과 인간의 노력이 든다. 이와 함께 이 일들의 시작인 석유는 46억 년 된 지구 역사의 과정 위에서 백악기와 쥐라기의 공룡 대멸종에서 시작했다. 알고 보니 아주 짧은 시간 사용되고 버려지는 페트병은 지구의 긴 역사를 담고 있는 아이였다.

페트병 하나가 가진 연결고리는 길게도 확장되지만 넓게도 확장된다. 석유를 시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시추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 시추, 운반, 원료 생산 등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과 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확장하다 보면, 우리 손에 들어온 마실 것이 든 페트병이 사용과 버려지는 과정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도 우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비근한 예로 아마존 원주민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아마존에 석유가 매장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가 이곳의 숲을 베어내고 석유를 발굴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아마존강은 시추를 위해 땅으로 뚫은 구멍에서 흘러나온 원유로 오염되고, 이곳에

의지해 사는 원주민과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생명에 고통을 안겨주었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석유 시추시설인 ‘딥 호라이즌’ 호 폭발로 원유가 계속 유출되어 해양오염을 심각하게 일으켰었다. 국내에서도 태안반도 인근에서 ‘씨 프린스’ 호의 해양 원유 유출 사건으로 수많은 이가 고통받았고 그 수보다 더 많은 해양 생명이 죽어갔다. 2021년에는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기 위한 플라스틱 펠릿을 싣고 가던 배가 침몰해 1,650톤에 해당하는 완두콩보다 작은 펠릿이 해양에 유출되었는데 유엔은 이를 최악의 해양 사고라고 칭했다. 스리랑카 인근에서 잡힌 물고기들은 입안에 플라스틱 펠릿을 잔뜩 넣은 채 잡혔다. 눈에 보였기 때문에 충격받았지만 보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다.

손에 든 페트병이 들여다보았다. 운 좋게 햇볕에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될 뻔했다. 운이 좋은 녀석이다. 아, 생각해보니 이 녀석이 아니라 우리가 운이 좋은 것인가?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중국에서 온 둥근 몸통을 가진 얇은 페트병과 하얀 스티로폼 조각, 그리고 오래 별에 노출되었는지 지친 빛깔의 페트병 등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한때 일부러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산과 들로, 바다로 주으러 다니다 지친 적이 있었다. 쓰레기를 줍고 나면 그곳이 깨끗해지는지는 하지만, 별 효과 없는, 그저 자연에 미안한 마음을 조금 표현해 보는 행동 같아 무의미해 보였다. 그래서 멈춘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안다. 페트병 하나에 연결된 세상이 있는 것처럼, 내가 버려진 플라스틱을 줍는 행동이 작아 보이지만 이 행동으로 연결된, 선한 영향을 받는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한 끼라도 더 채식을 하는 것에서, 물을 절약하고, 전기를 아끼는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작지만 다양한 모든 행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돌고 돌아 더 나아진 세상을 말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김승현 사람도 지구상의 생물들도 모두 평안하게, 자신의 삶대로 살 수 있기를 꿈꾸며 ‘월든’을 설립했다. 2019년부터는 <바질 지구생활안내서>를 발행해 기후위기 시대, 지구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쥬노 멸종위기동물카드>를 개발해 기후위기 시대, 함께 살아가야 할 생물들을 알리는 작업도 하고 있다. 구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실천법을 알리기 위해 기고, 강연, 방송 등 다양한 활동 중이다.



3. <굴포천천히> 환경 교육을 끝내며

글 | 소중한 모든 것 **소정**

2022년은 유독 친환경 수업 요청이 많은 해였다. 그만큼 중요성도 커지고, 관심 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친환경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6월 제로웨이스트 샵을 소중한 모든 것 오픈한 후 꾸준하게, 연대하며 확장하고 있는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환경 수업을 하다 보면 간혹 염세적인 분을 만날 위험(?)이 존재한다. 냉소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쓰레기 한 봉지 줄인다고 지금 이미 심각해진 문제들이 해결되겠냐고, 기업과 국가가 해야할 일이지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찾느라고 여러 날 고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부평 <굴포천천히> 수업에서 만난 분들은 호의적인 분들이었다. 특히 나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자원순환 활동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참여하고 싶은 의지를 많이 보여주셨던 기억이 난다. 재활용을 목적으로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재사용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쓰레기를 대하는 방법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분류하고, 버리고, 내놓는 것에서 끝이 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꽤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 1. 물건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있는지 확인하기. 재활용이 더 용이한 물건을 선택하기
- 2. 물건을 구매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기. 남아서 버리는 양을 줄이기.
- 3. 물건을 사용할 때 낭비하지 않기. 소비의 시작 방법을 바꾸기.
- 4.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다회용품을 사용하기.
- 5. 1~4 규칙을 제대로 지켜서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기. 자구에 쌓이는 쓰레기들을 줄이기.
- 6. 포장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려고 노력하기. 쓰지 않는 쓰레기를 줄이기.
- 7. 배출된 쓰레기를 다시 쓸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

사실 쓰레기 문제를 관심 가지고 들면 들수록 화나는 일만 생겼다. 잘 버려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쓰레기들은 근본 없는 믿음을 배신하고 우리 집 앞, 뒤 안 보이는 곳에 짹짹 채워지고 있었고, 길 위에는 무책임하게 버려져 한 걸음 떼기가 무섭게 발견되며, 바람에 쓸려 도로 옆에 쌓이고 있는 쓰레기들이 마음을 영 불편하게 만든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며, 고통받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늘어간다.

이 모든게 무자비한 소비를 하며 제대로 버리지 않는 사람 잘못이며, 모든 척 무시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잠재적 가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분노의 힘으로 열정을 태워, 어떻게든 세상의 한 부분이라도 바뀌어야겠다는 다짐으로 환경 관련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가지 않고, 절망감과 무력감으로 돌아왔다. 남 탓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 중에 담배를 피고 창밖으로 버리는 앞차 운전자를 증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이상 창밖으로 담배꽂초를 버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대한 미움과 증오는 그만하기로 했다.

내가 해결책으로 선택한 방법은 소비와 쓰레기와 기후변화의 이야기를 '지구의 문제'가 아닌 '내가 매일 직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였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보다는 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한다.

매일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이유는, 이 쓰레기들이 결국 돌고 돌아 내 식탁 위로 올라오는 게 싫어서이며, 환경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명을 받으러 다니거나, 모임을 추천해서 텀원들과 단체활동을 하는 것도 역시 내 건강과 내가 살아갈 나날들을 위한 나를 위한 행동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이타적이고 낙천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리고 활동하는 와중에,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사람들을 만나며 다채로운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었다. 최근에는 자원순환을 통해 모은 자원들로 직접 업사이클 하는 작업을 시작하기도 했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벌려 지역 내에서 <인천유랑마켓>이라고 하는 제로웨이스트 플리마켓을 기획해서 진행해보기도 했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의 변화'를 겪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며 활동 중이다. <굴포천천히> 환경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2023년에도 또 뵈 수 있길!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 1회 제로웨이스트상점 제로웨이스트 베이스캠프를 부제로 쓰레기 줄이는 일, 소비를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직접 경험하고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려고 노력 중. 무포장 제품을 구매하고, 버려지는 자원들을 수거하여 선순환하기 위해 노력하며, 친환경 워크샵, 환경정화 모임을 통해 환경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용기내 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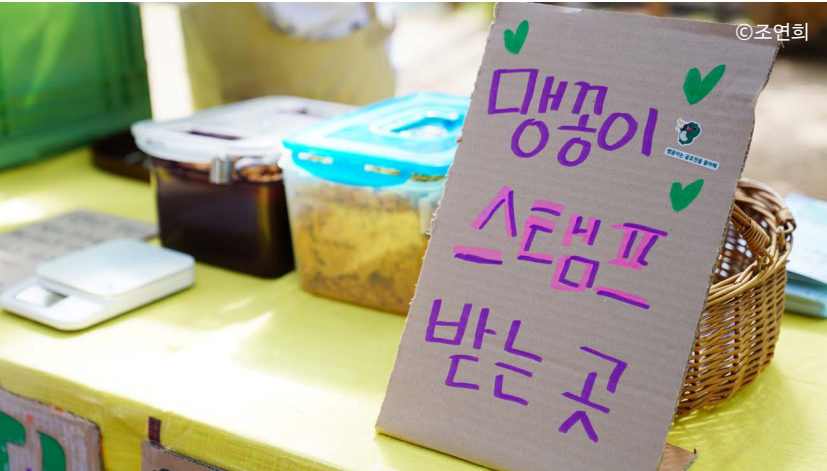
쓰레기 없는 환경 주간, 굴포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환경축제를 통해 발급된 '맹꽁이 쿠폰'의 목적은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다회용기 사용 습관을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며, 환경에 가깝게 다가서는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굴포천을 중심으로 13개소 상점과 함께 쓰레기 없는 주간을 꾸렸습니다. 아직은 불편하고 어색한 일주일이었지만, 오늘의 실천 경험이 쌓여 큰 결실로 가는 길을 만들지 않을까요? 쓰레기 없는 주간을 위해 참여해주신 상점과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쓰레기 없는 주간 참여 상점

가벼운오늘(@light_daytoday)
연근상점(@lotusroot_shop)
쓰는하루(@writing_day_)
빌코멘(@willkommen_official)
토금(@to_geum)
올드타운(@_oldtown)
모니모니카페(@monimoni_official)

꽃차당(@flowertea_dang)
피트로커피(@ftrocoffee)
마이요마이(@my_yo_my_)
카페프릴(@cafe_frill)
딩푸(@_dingpu)
고양이발결음(@cafe_nekoashi)



시민들의 이야기

환경작가로서의 첫걸음_우리가(可) 에코라이터!

환경부가 주최하고 국가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하며, 인하대학교문화예술교육원이 운영한 환경작가리더 양성 교육과정 <환경작가로서의 첫걸음_우리가(可) 에코라이터!> 환경의,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전국에서 모인 환경작가들의 <굴포천천히> 환경 축제 현장 답사에 대한 후기를 글로 기록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초록빛 굴포천, 그 푸르름을 사랑한 환경작가들이 기록한 그 날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굴포천천히 환경축제’의 현장을 가다

글 | **강은영** (우리가 에코라이터 참여자)

'우리가 에코라이터' 환경작가 수업의 현장학습을 가는 날, 나는 집을 나서기 전 '굴포천천히'라는 타이틀에 먼저 사로잡혔다. 그것이 어떤 풍경과 가치 그리고 의미를 담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상상력이 막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잠깐 상상을 해보았다. 순간 가슴이 설레었다. 뭔가 인공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자연의 새와 나무, 시냇물, 돌다리 등이 펼쳐져 있을 것만 같았다. 환경축제 주제어 중에서 '천천히'와 '환경'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했다. 그러나 섣뎡 의미가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답은 현장에 있으리라.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서 상상해 보기로 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굴포천천히 환경축제'에 참여하였다. 아쉬운 점은 다른 사정으로 일정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함께해야 했지만 조금 늦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오늘의 활동은 밖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하늘이 맑았다. 올해 가을은 유난히 하늘을 볼 기회가 많았고 볼 때마다 하늘은 드높고 파랗고 구름은 두둥실 제멋대로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날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즐거웠다. 내 눈에 가장 먼저 띤 것은 하늘이었다. 땅에 덮여 있던 굴포천을 드러내는 도시재생사업이라면 결국 하늘빛을 되찾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땅으로, 땅에서 천과 바다로, 그리고 다시 하늘로 환원되는 것이니 말이다.

많은 부스들이 있었는데 다회용 컵을 통해 환경 보호와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스타트업, 집에서 먼 손수건 가재 수선 배 바자기 같은 걸 제작해서 인스타그램 오픈 카카오톡 홍보를 하고있는 애기 엄마, 잠지에서 사진 그림을 오려 붙여 스캔하고 엽서 제작 판매 및 블렌딩 워드 카드를 제작하여 다양한 문장을 카드로 하여 판매하고 있는 디자인 기획업체, 퇴사 후 이예아 진짜 하고 싶은 걸 혼자 하고 있다는 청년,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여 연필과 열쇠 걸이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공예 강사 등. 부스에 있는 분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그들에게 환경 실천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환경관련 산업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내가 30년 전에 경험했던 활동들이 이곳에서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에도 나는 환경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환경 교육도 받고 문제도 풀고 했었는데, 지금은 관에서 진행하는 같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지구의 오염이 그대 예언한 그대로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에는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관이 할 정도로 심각해진 것이다.

내게 들어온 풍경은 캔버스로 보였다. 냇물이 흐르고 나무들이 그늘과 산책로를 제공해 주며 각종 부스와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제 나는 체험 부스로 빨려 들어가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묻고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구입하면서 조금 놀랐다. 이미 친환경도 하나의 산업으로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반가웠던 것은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교육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들 자신이 환경에 있어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것, 저마다 환경 지킴 마크를 달고 환경 시민으로 굴포천을 거닐며 자연의 품에 안겨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짜 환경운동의 시작이 아닐까? 굴포천을 걷는다는 것은 길과 물, 나무, 새, 곤충 등을 세밀하고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또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쉼, 휴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복잡한 부평의 어느 한 도심 속 작은 개울물이 흐르는 굴포천, 그곳에서 환경이 다시 살아 꿈틀거린다. 환경 시민들이라면 이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지 않을까?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친환경 축제

글 | **조연희** (우리가 에코라이터 참여자)

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지난 10월 8일,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에서 도시환경을 경험하는 '굴포천천히' 환경 축제가 열렸다. 아직은 짙푸른 생기가 느껴지는 작은 숲에서 열리는 환경 축제 소식에 들뜬 마음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굴포천 일대를 따라 부스가 꾸며졌을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생각보다 작은 규모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축제라고 하면 모를지گ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시골벽적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또한 내가 가진 선입견이라는 사실을 축제를 즐기며 곧 깨달았다. 필요한 것으로만 간결하게 꾸민 체험 부스와 환경을 체험해 보는 자전거 발전기 체험, 환경 다짐 캘리그래피가 눈길을 끌었다. 바닥에 고정된 자전거 위에 올라 열심히 페달을 밟자 방울방울 비눗방울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힘들 법도 하건만, 페달을 밟는 만큼 터져 나오는 비눗방울이 재미있는지 좀처럼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꼬마 친구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었다. '앗아, 환경 놀이는 이렇게 재미있는 거야.' 현장에 도착해 작은 규모에 실망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사이에 어느새 녹아들어 있었다.

이번에는 환경 플리마켓을 둘러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여러, 입구에 놓인 안내판에 귀여운 멍공이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멍공멍공하고 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를 멍공이. 굴포천은 귀여운 멍공이가 터를 잡고 서식하는 곳이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멍공이 캐릭터를 축제 부스 등에 활용해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다. 운영 부스에서 나눠주는 '굴포천천히' 스티커에도 귀여운 멍공이가 캐릭터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참에 지역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지역의 환경을 나타내는 멍공이를 활용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창한 나무가 우거진 생태 놀이터에 초록색으로 색을 맞춘 환경 플리마켓 부스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입구만 벗어나도 높은 건물이 즐비한 부평 도심에 피터팬의 원더랜드가 숨어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더는 사용하지 않지만 쓰임에는 문제가 없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중고장터부터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친환경 제품과 다회용기에 담아 구매하는 리필스테이션까지 환경과 관련된 물품이 가득했다. 부스마다 종이박스를 잘라 손으로 쓴 안내문이 걸려 있어 정겹게 느껴졌다.

축제장 한편에는 지구 환경의 심각성을 알리는 패널이 꾸며져 있었다. 산뜻한 바람이 불어 드는 작은 숲 가운데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글을 읽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축제장에서 흔하게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풍선이 없었다. 귀를 찌르는 소음도 없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축제장은 편안하게 자연을 느끼며 걷기 좋았다. 이따금 물가 쪽에 마련한 무대에서 들려오는 버스킹 공연만이 잔잔한 BGM처럼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어우러질 뿐이었다.

굴포천천히 환경축제는 비우는 것에서 시작했다. 축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형식적인 것들을 거둬내고 꼭 필요한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다. 판매하는 물건들은 걸 포장 없이 진열되어 있었고, 구매할 때도 담아 가는 봉투를 주지 않았다. 덕분에 쓰레기 발생제로. 시골벽적한 축제에 다녀오고 나면 느껴지던 피로감은 어쩌면 과도하게 넘쳐났던 화려한 걸치장 때문이 아닐까 싶었다.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외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친환경 축제의 가능성을 엿본 값진 시간이었다.

생태 도시로의 도약

글 | **임아현** (우리가 에코라이터 참여자)

인천 부평구 문화도시 센터에서 주관하는 '굴포천천히 환경축제'는 생태 도시 발전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축제를 관람하기 전에는 그저 단순히 문화적인 것에 초점을 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참여해보니 환경 의식을 기를 뜻깊은 기회였다. 굴포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부터 굴포천의 현 상황, 역활, 영향 등을 알아가면서 인천 부평구에 있는 굴포천이 왜 보호되어야 하고 왜 이런 축제를 진행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극심한 산업화로 인해 굴포천도 어김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인위적으로 유로를 바꾸어 현재의 하천이 되었다. 문제는 인위적 하천의 개조는 도시화가 가속될수록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시환경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어떻게 해야 도시와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축제에서 뜻하고자 하는 바도 도시환경의 보존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내가 가장 크게 느낀 바도 환경과 사람이 공생하는 생태 도시의 중요성이다.

‘문화도시 부평’이란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축제가 잘 준비되어 있다고 느꼈다. 기본적인 친환경 플리마켓부터 직접 체험 가능한 환경 관련 부스, 그리고 환경 도서전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녹색 소비에 서명하고 친환경적인 물품들을 받으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게 되었다. 환경을 고려한 소비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인 것 같다. 여러 기업에서 소비자들이 녹색 소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굴포천천히 축제에서 좋았던 것은 축제를 즐기는 코스이다. 먼저 굴포천을 따라 걸으며 생태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마지막에 환경 축제를 즐기며 생태 환경을 위해 작게나마 실천하고 소비하는 순서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아쉬웠던 점은 부평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을 방문하지 못한 것이다. 기후변화체험관을 갔으면 기후 위기에 대한 실감적인 인식을 심어주었을 터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탄소 중립에 관한 실감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경험하고 왔으면 더 적극적인 체험이 되었을 것이다.

도시 안에서의 친환경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도 문화도시 부평에서는 환경 보전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만들려는 마음이 실천으로도 나타나서 감명 깊었다. 다른 지역들도 이를 본받아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 축제를 통해 하천 환경을 살리기 위해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축제뿐만 아니라 교육 및 홍보 사업을 더 추진시켰으면 한다. 하천 아카데미(청소년 하천 살리기 모임 운영, 하천 환경 교육)나 하천 환경 교육교재 개발, 홍보 리플릿 배포, 주민 주도 하천 살리기 참여 활동 운영(하천 살리기 마스터 플랜 추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 환경 리더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민 참여부터 시작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한 뒤 환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하천 환경을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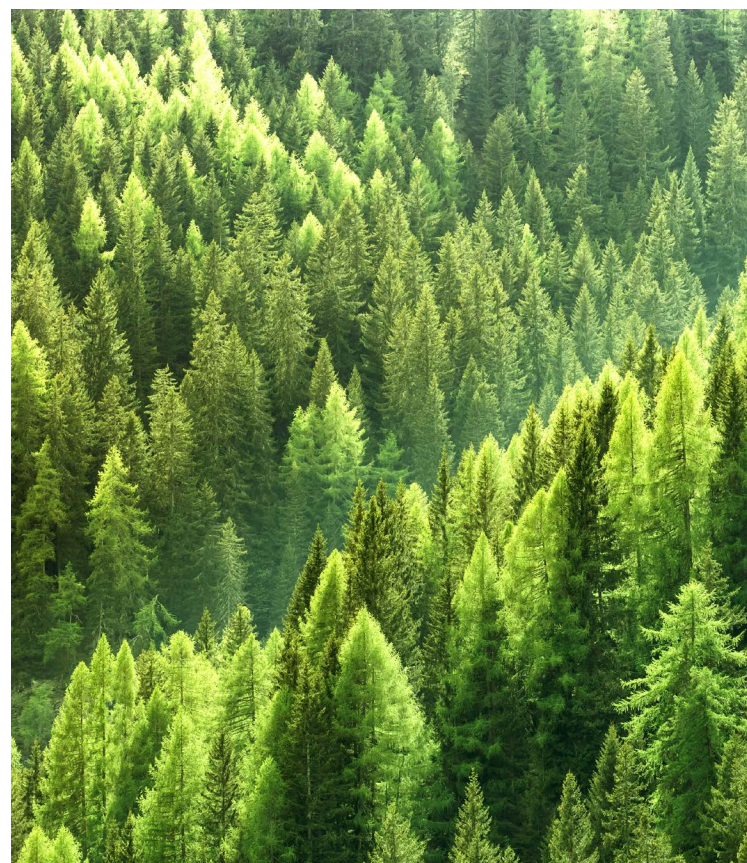
굴포 천천히 그러나 지금 당장

글 | **이문영** (우리가 에코라이터 참여자)

굴포천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다. 서울이 생활권이다 보니 인천에 갈 일이 거의 없었다. 실은 부평구가 인천시에 속한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다. 굴포천에 가기 위해 지하철 7호선을 탔다. 굴포천역이 있었다! 왠지 모르게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에 여행 가는 것처럼 설레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익숙한 곳들만 다니다, 낯선 곳을 가려니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었다.

굴포천에 도착하니 아기자기한 가판대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 뒤로 버드나무들이 수려하게 반겨주고, 그 위로 높다란 가을 하늘이 보인다. 이렇게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곳 이구나, 감탄했다. ‘굴포 천천히 환경 페스티벌’에 즐기러 이제 왔다. 자전거 자가 발전기부터 체험했다. 큼지막한 장바구니를 준다는 첩보에, 또 축제장 초입에 있어서 바로 갔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데 쉽지 않다. 너무 빨리 밟으면 발전기에 부하가 걸리고 발전기에 연결된 기계에서 비눗방울이 나오지 않는다. 페스티벌 이름처럼 ‘굴포천천히’ 페달을 밟아야 한다. 비눗방울이 방울방울 나오니 합격. 장바구니를 들고 본격적인 축제 마당으로 들어간다.

다음으로 캘리그래피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 생태와 캘리그래피라니 무슨 관계일까 의아했다. 작은 캔버스에 나만의 캘리를 채워 넣을 수 있었다. 예시된 문구들을 써보면서 돌아보게 된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우리는 즐거운 가족’ 등등. 한 글자 한 글자 그리면서 굴포천천히 환경 페스티벌을 새겨봤다. 세 번째 체험은 네잎클로버 키링 만들기다. ‘똥손’인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망설였다. 호스트 분이 자신 있게 리드해주셨다. 원래 시작은 30분 뒤인데,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하신다. 지금 생각해보니 환경을 지금 당장 바로 아껴야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아마도 이런 빠른 실행력을 가지신 분들이니, 축제에 호스트로 참여하신 것 아닐까 생각한다. 양말목을 두툼한 머리 끈 정도의 두께로 잘랐다고 한다. 양말이 네잎클로버 매듭 키링으로 변신하는 데는 9개만 필요했다. 정말 똑딱 만들어져서 나도 모르게 감탄했다. 네잎클로버의 행운이 깃들기 바라며 가방에 달았다.



그 다음 방문은 리필 스테이션이었다. 재사용 가능한 에코백이다. 쇼핑백을 들고 오신 주민분들이 있으셨다. 그분들은 바로 기부하고 세제나 과자를 리필해가셨다. 준비를 미처 못한 나는 천원에 300cc 정도의 섬유유연제를 살 수 있었다. 용기를 재활용할 수도 있으니 상당히 저렴했다. 더 사고 싶었지만 1인당 한 개만 구매 가능했다. 가족들을 데리고 올 걸 하는 후회를 살짝 했다. 내가 사는 집 근처 화장품 가게에도 리필 스테이션이 있었다. 저렴한 가격에 샴푸, 바디워시, 핸드 워시를 구매할 수 있었다.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으니 더 좋았다. 계속 리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곳이 문을 닫았다. 해당 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리필 스테이션은 어디에 있을까요?”

돌아오는 답변은 왠지 모르게 무책임하게 들렸다. 이제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마케팅할 때는 언제고, 왜 다시 회귀했을까. 아마도 고객들이 찾지 않아서겠지 싶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을 텐데 말이다. 그래도 기업에서도 조금 더 참을성 있게 공급해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 그다음 체험은 톨렛 돌리기. 내 운을 내 손끝에 맡겨 톨렛을 돌려본다. 어쩌면 환경도 내 손끝에 달려 있겠지. 1등 당첨! 나무 칫솔, 액정클리너, 카드지갑과 스낵을 받았다. 이렇게 기분 좋게 체험을 마쳤다.

축제장의 끝에서 굴포천으로 내려가 볼 수 있었다. 굴포천에 멍꽂이가 살고 있다고 한다. 동화 속에서나 읽었던 멍꽂이였다. 개구리를 닮은 멍꽂이. 멍꽂멍꽂 울어서 멍꽂이라고 한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았는데, 역시나 멸종 위기라고 한다. 굴포천에서 2004년에 멍꽂이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찾아보고 싶지만, 왠지 찾는 것조차 방해가 될까 망설여진다. 굴포천을 따라 산책하고 축제 방문을 마쳤다.

며칠 후, 뉴스를 보다가 경악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농지에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약속하고선, 건설폐기물을 부셔서 묻은 것이다. 그 농지는 회복할 수 없게 돼버렸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불법 매립된 쓰레기들과 함께 묻히는 것 아닌가. 한숨이 절로 나오고 우울해지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멍꽂이처럼 이미 사라져가는 동·식물들이 있고, 그들은 쓰레기와 불법 폐기물 옆에서 겨우겨우 살다 죽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당장 노력하고 바뀌어야 한다. 얼마 전부터 일회용 물티슈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 부끄럽지만, 편하다는 이유로 사용해왔다. 알고 보니 물티슈는 종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생각지도 못했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일회용 물티슈가 떨어지니 가족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고 불편해했다. 이유를 설명하니 금세 수긍한다. 생각하기 싫었던 이유 들을 생각하고 지금 당장 실천해보기로 마음먹어본다.



©조연희

달는 글

<굴포천천히> 사업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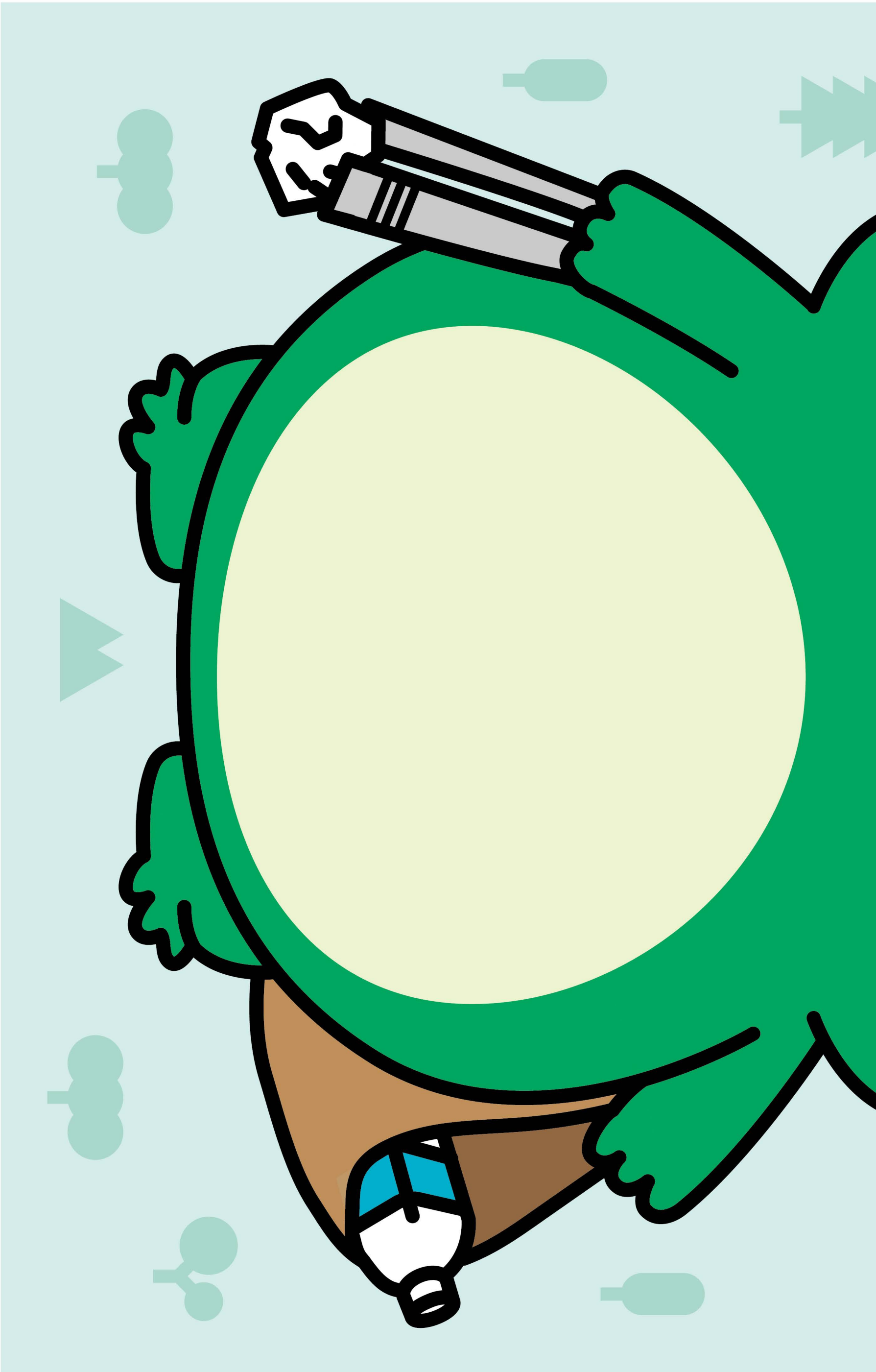
굴포천 예술천 조성 협력 기획자 **김한솔**이

요즘 어디를 가도 지구를 품은 단어를 자주 만난다. 플라스틱 빨대가 수북이 쌓여있던 카페에는 환경 마크를 단 종이 빨대가 놓여있고, 편리한 이기심이 먼저였던 마트 진열장에도 생분해 성분, 저탄소 제품, 무라벨 등 순환을 위한 움직임이 눈에 띈다. 변화의 바람은 동네 어귀 곳곳에서도 마친가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모임, 자원순환 축제, 친환경 폴리마켓을 알리는 초록초록한 포스터도 곧잘 보이고, 무포장 상품을 파는 제로웨이스트 상점들과 비건 전문 식당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인문학 서적, 에세이, 그림책은 매년 종수를 늘리며 출간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 또는 ‘자원순환’은 유기농 전문 상점이나 환경 단체의 소속된 말과 단어였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쓰기 쉬운 단어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빠른 속도로 일상성을 띄며 삶 속으로 깊숙이 밀려오고 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하며, 누구나 관심을 갖고 배우는 말로 자리를 잡는 중이다. 문화는 언어의 변화와 함께 시대를 현상한다. 일상과 접점을 맞닿은 환경 단어들의 빈도를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는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비록 기후 위기가 빚어낸 경고의 움직임일지라도 말이다.

문화도시부평에도 환경의 바람은 불어왔다. <굴포천천히> 사업을 시작으로 그 어느 해보다 무성한 잎사귀를 뽐어내는 초록한 해를 보냈다. 굴포천을 중심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지구와 우리의 연결점을 이야기했고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며 이해를 도왔다. 각자의 방식으로 환경을 말하는 청년과 자신만의 신념으로 실천을 나가는 상점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었던 시민들이 만나 첫 번째 환경축제도 무사히 치러냈다. 일련의 시간들이 쌓여 속스러운 말이었던 ‘친환경’ 혹은 ‘환경 시민’이 이제는 제법 편안한 말이 되어간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매듭들이 여전히 많지만, 환경이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온 만큼 앞으로 함께할 이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를 품어본다. 환경과 사람 그리고 문화를 유연하게 풀어낼 다음 사업을 고대하며 글을 마친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골포천천히 땀방이 캐릭터

골포천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 보호종으로 지정된 땀방이가 살고 있다.
계속되는 도시의 개발과 무너지는 환경으로 인해 어쩌면 땀방이를 보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 아닐까?
문화도시부평은 골포천 예술천 조성 사업의 마스코트로 땀방이 캐릭터를 만들었으며,
땀방이와 함께 골포천, 그리고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발행인	이찬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황유경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기획인	이미숙 창조팀장, 문경선 창조팀원
운영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창조팀(정지혜, 김가람, 문경선, 이유림)
협력·기획	김한솔이

발행처 (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발행일 2023년 1월